

# 흥미진진 공주

2026.05

Vol. 374





공주시의회 부의장  
이용성

5분 자유발언

공주의  
다음 10년,  
이제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공주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 10년, 나아가 100년의 공주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특정 정책이나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주가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 최소한의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책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빠른 정책이 반드시 좋은 정책은 아니다.

지금 공주에 필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유지할 수 있느냐,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느냐이다. 오늘의 결정이 미래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다음 10년 행정의 첫번째 기준이어야 한다.

둘째, 공모와 외형이 아니라 '도시에 맞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좋은 정책이 다른 도시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공주에서도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

공주는 공주만의 역사와 구조가 있고, 인구 규모와 생활 환경이 있다. 따라서 정책을 선택할 때 "할 수 있는가"보다 "공주에 맞는가"를 먼저 묻는 행정, 이것이 두번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셋째, 행사가 아니라 '생활 변화'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체감하는 행정은 행사장이 아닌, 일상의 골목과 주거지에서 느껴진다.

단순히 사진만 남는 행사와 정책이 아니라 생활이 바뀌는 정책, 하루가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정책이 다음 10년 공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넷째, 형식적 참여가 아니라 '설명 책임'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시민 참여는 절차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이미 결정된 뒤에 설명하는 행정은 참여가 아니라 통보에 가깝다.

왜 이 정책이 필요한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설명할 수 없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 것, 이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선언'이어야 한다. 예산서에 적힌 숫자 하나 하나는 이 도시가 무엇을 먼저 챙기겠다는 선택의 기록이다. 다음 10년의 예산은 확장보다 내실을, 보여주기보다 책임을 선택해야 한다.

이 제안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과거를 정리하기 위한 발언도 아니다.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준 제안이다. 이 기준이 집행부의 정책 판단에, 그리고 우리 의회의 논의 과정에 작은 기준점으로 남기를 바란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만들어 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10년 뒤, 공주 시민들이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공주의 미래는 우리의 책임이다.



공주시의회 의원  
권경운

5분 자유발언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교황 공주 방문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주는 백제의 왕도이자 조선 중기 이후 충청의 중심 도시로서 수많은 역사와 문화 유산을 간직한 도시다. 특히 조선 말기, ‘서학’이라 불리던 천주교가 공주와 내포 지역을 중심으로 전래되면서, 공주 곳곳에는 그 신앙의 흔적과 의미 있는 유산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846년 신평면 봉갑리 수리치골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심단체인 ‘성모성심회’가 조직되어 운영됐다. 이에 대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도 1984년 방한 때 명동성당에서 “1846년 무서운 박해하에서 공주 땅 수리치골에서 이 나라와 교회를 성모님께 봉헌하였다”고 언급하신 바 있다.

또한 웅진동의 황새바위는 1801년 ‘내포의 사도’ 이존창이 순교한 곳이며, 이후 337인의 순교자가 희생된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명단이 확인된 가장 많은 순교자 기록이 있는 국내에서도 매우 상징성이 큰 천주교 성지이다.

이처럼 공주는 천주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해미성지 방문 후 바로 대전 교구로 가시며 공주는 주요 방문지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을 겪었다.

반면, 당시 방문지였던 해미성지는 이후 2021년 국제성지로 선포되며 전 세계 순례자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교황 방문 이후 지금까지 한국 관광 100선으로 꾸준히 선정되어 한국 관광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제 다시 중요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천주교 세계청년대회가 2027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레오 14세 교황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는 우리 공주가 교황님을 꼭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재 공주향토문화연구회, 내포교회사연구소, 공주시관광협의회, 공주시언론인협회,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주시 고도 육성 주민협의회, 웅진동주민자치회, 무령왕국제네트

워크협의회 등의 단체가 협력하여 4월 ‘교황 방문을 소망하는 공주 천주교 성지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는 공주 성지의 가치를 알리고 내년 교황 방문에 대한 지역의 염원을 모으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민간이 먼저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과 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민간의 유치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공주시가 중심이 되어 ‘공주 천주교 성지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역사적·종교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셋째, 교황청에 공주의 뜻을 전달하는 공식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시장을 비롯한 각계의 서한 전달, 시민 참여형 편지쓰기 운동 등으로 공주 시민들의 염원을 교황청에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공주와 인연이 깊은 유흥식 추기경께서 교황청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만큼,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공주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야기가 살아 있는 도시이다. 황새바위 성지가 세계적인 천주교 성지가 되어 지구촌의 많은 천주교 신도들이 공주를 찾는다면 세계적인 종교 성지로서의 위상까지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한다면, 그 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다. 앞으로 1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공주의 염원이 현실이 되기를 기대한다.